

새누리 120~130석·야권 135~145석 예상

지역구 절반 육박 수도권 선거 승패 좌우 화력 집중



■ 여야 몇석 얻을까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29일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성적표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총선이 연말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어 135~145석 정도를 얻는 여야의 성적표에 따라 대선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남권** = 새누리당의 정치적 텃밭인 영남권에서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새누리당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부산의 사상(문재인)과 사하(조경태)는 확실한 우세지역, 북·강서(문성근)는 경합

하는 수도권 선거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 격전지가 많아 어느 한 편의 완승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지만 '정권 심판론'을 토대로 야권연대를 이룬 야권이 다소 유리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40~45석 정도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당은 인천을 포함, 적어도 45~55석 정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야권이 새누리당보다 20석 이상 더 얻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충청권** =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에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치열한 3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청권 25석 가운데 7~8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서구 등과 충남지역 3~4곳을 확실한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남권** =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소속 풀풍이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광주·전남·전북 5~6곳 이상에서 무소속 후

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의 당선 여부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비대위 원장 핵심 측근인 이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할 경우 견고한 지역구도를 깨뜨리는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 완산을 예로 들자 새누리당 정은선 후보가 얼마나 선전할지 주목된다.

◇**강원·제주** = 강원은 의석 9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4곳 정도를 경합 우세지역으로 분류할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릉과 철원·화천·양구·인제 등지에서, 민주당은 속초·고성·양양과 원주 등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3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대구·충청·호남** = 대구는 의석 9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4곳 정도를 경합 우세지역으로 분류할 정도로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강릉과 철원·화천·양구·인제 등지에서, 민주당은 속초·고성·양양과 원주 등지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 3석 모두 민주당 후보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경기** =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에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치열한 3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서구 등과 충남지역 3~4곳을 확실한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호남** =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무소속 풀풍이 관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적어도 광주·전남·전북 5~6곳 이상에서 무소속 후

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충청** =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에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치열한 3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서구 등과 충남지역 3~4곳을 확실한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후보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4·11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29일 무소속 이병훈 광주 동구 후보가 금남로 구 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출정식과 함께 '깨끗한 공명 선거 실천 결의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서로 부정적인 총선 전망을 내놓으면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해훈 총선 종합상황실장은 29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4·11 총선 종합상황실 일일현안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관세분석을 해왔는데 언론에서 한 관세 분석과 자체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승산 지역은 70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비교적 우세한 지역이 47개 정도로 분석되며 경합 중에서도 경합 우세지역이 23개, 열세 지역이 11개,

총선 예상 의석수 여야 신경전

새누리 이해훈 "고작 70석" 민주당 박선숙 "소가 웃을 일"

경합 열세가 31개로 파악됐다"며 "야권이 이기는 곳은 146개이며 만약 야권이 선전한다면 비례대표를 포함한 190석을 가질 것으로 초반 관세가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 실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박선숙 사무총장은 기

보라"며 "지난 25일 야당의 승은 표 5%를 까도 전망이 관망하고 하더니 나올 만하 말을 바꾼 것은 소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24~26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세 38개, 경합우세 21개, 경합열세 18개, 열세 87개, 무공천 37개, 혼전 45개라고 밝힌 뒤 "우리가 지역구 전망을 104석으로 제시한 건 경합지역에서 다 이길 때 이야기"고 말했다. 이처럼 양당이 서로 총선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놓는 것은 지지층에 위기감을 고조시켜 결집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충청** =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에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이 치열한 3각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충북을 중심으로 10곳 안팎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대전 서구 등과 충남지역 3~4곳을 확실한 우세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대기업·정부 강력 비판·동반성장위원장 사퇴 정운찬, 대권도전 나서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제14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기업이 사회양극화를 방지하고 동반성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2010년 뒤 "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대통령과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지금 사퇴하는 것이 최선이라

4·11 총선 현장

이용섭 "새누리당 색깔론 국민기만" 안영돈, 청년공약·지역공약 발표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9일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또다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국정 실패와 MB심판론을 피하기 위해 구시대적인 색깔론을 국민에게 명백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안영돈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31사단을 이질시켜 북구를 교육과 의료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청년공약과 지역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공약으로 ▲청년의무고용제 실시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전세자금 대출 허용 ▲국립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폐지 ▲병사 임금 현실화 등을 제시했다.

김동철 "재벌 특혜 정권 끝장내야" 이민원 "나도 장관급 인물"

민주당 김동철 광주 광산 국회의원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29일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명박 정권 아래 어께가 더욱 처져 보이는 가장과 근로자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필승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승정역 앞 첫 유세에서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1% 재벌 특권층을 위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이민원 광주 남구 국회의원 후보 측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통합진보당 후보가 참여정부 시절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정몽규 출신임을 인정하지 않, 이 후보도 광주 경실련 공동대표와 광주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으며, 장관급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논리를 만들어 전국 각지에 혁신도시를 기획하고 현실화한 장본인"이라고 덧붙였다.

장원섭, 이정희 대표와 함께 유세 정남준 "서구민의 힘 보여주기"

통합진보당 장원섭 광주 광산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오후 4시 이정희 대표와 함께 우산시장 상인들과 금호타이어 노동자 등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장 후보는 또 이날 오후 6시 영광동 4거리에서 이 대표와 함께 유세를 펼쳤다. 장 후보는 유세에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적임자"라며 "한미 FTA 폐기, 서민복지 실현, 전투비행장 폐쇄"를 역설했다.

정남준 무소속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운동 첫날인 29일 오전 서구 금호동 금남사거리에서 선거운동원과 함께 필승을 결의하고, "선거기간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좁은 부름' 등·조각·동원·관권 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시민들의 무서운 힘을 보여주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1. 유동자산	2,692,374,125
(1) 현금및현금성자산	790,875,895
2. 비유동자산	137,940,000
(1) 토지	137,940,000
(2) 건물	0
(3) 기계장비	0
(4) 기타	0
3. 차입금	11,499,014,932
(1) 단기차입금	0
(2) 장기차입금	11,499,014,932
4. 자본총계	11,499,014,932
(1) 자본	11,499,014,932
(2) 이익잉여금	0
(3) 공적금	0
(4) 기금	0
(5) 특별회계	0
(6) 기타	0
5. 기타	0

제23기 決算公告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1. 유동자산	144,080,047,650
(1) 현금및현금성자산	31,843,775,530
2. 비유동자산	137,860,000
(1) 토지	137,860,000
(2) 건물	0
(3) 기계장비	0
(4) 기타	0
3. 차입금	18,080,090,000
(1) 단기차입금	0
(2) 장기차입금	18,080,090,000
4. 자본총계	159,730,703,827
(1) 자본	159,730,703,827
(2) 이익잉여금	0
(3) 공적금	0
(4) 기금	0
(5) 특별회계	0
(6) 기타	0
5. 기타	0

제8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1. 유동자산	1,437,856,709
(1) 현금및현금성자산	1,418,308,709
2. 비유동자산	132,553,839,297
(1) 토지	132,553,839,297
(2) 건물	0
(3) 기계장비	0
(4) 기타	0
3. 차입금	18,080,090,000
(1) 단기차입금	0
(2) 장기차입금	18,080,090,000
4. 자본총계	133,991,696,006
(1) 자본	133,991,696,006
(2) 이익잉여금	0
(3) 공적금	0
(4) 기금	0
(5) 특별회계	0
(6) 기타	0
5. 기타	0

제22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1. 유동자산	14,263,938,268
(1) 현금및현금성자산	2,494,530,775
2. 비유동자산	10,980,000,000
(1) 토지	10,980,000,000
(2) 건물	0
(3) 기계장비	0
(4) 기타	0
3. 차입금	126,718,036,919
(1) 단기차입금	1,913,603,762
(2) 장기차입금	124,804,433,157
4. 자본총계	141,551,591,942
(1) 자본	141,551,591,942
(2) 이익잉여금	0
(3) 공적금	0
(4) 기금	0
(5) 특별회계	0
(6) 기타	0
5. 기타	0

어업회사법인 신의도천일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병중

중흥건설(주) 대표이사 정창선

광주제2순환도로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성철

일신창업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술